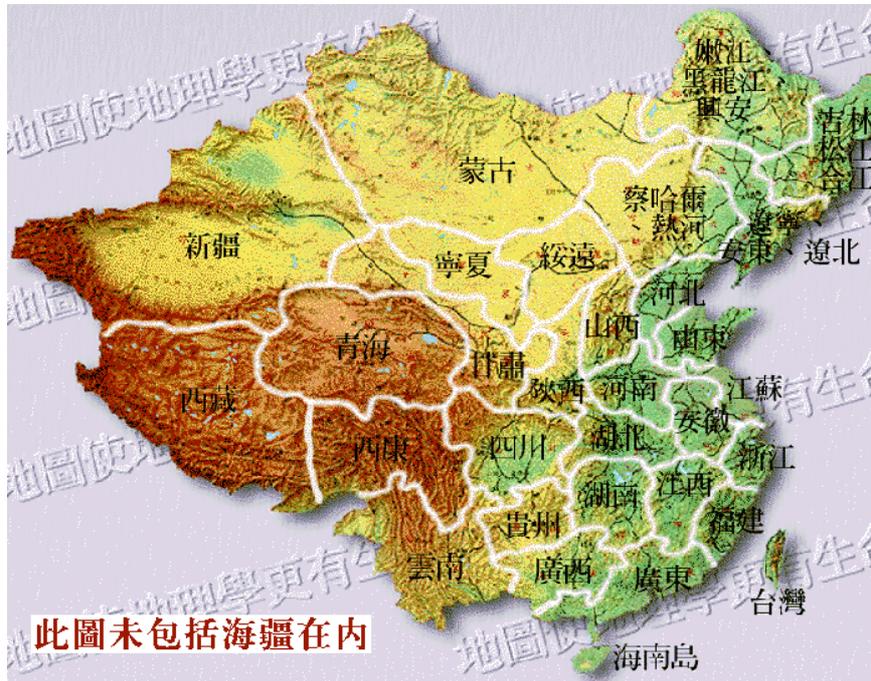


1) Sino-Tibetan language (Southeast Asian Languages)





남동아시아는 언어들의 갯 수에 있어서 그리고 언어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잡함에 있어서 모두 세계의 위대한 언어 창고들 중의 하나이다. 단지 *Burma(Myanna)*만으로도 그 국경 이내에서 125 개와 140 개 사이의 언어들이 보고된다. 비록 *Vietnamese, Cambodian, Thai, Malay*와 *Burmes*같은 국가언어들은 수세기 오랜 전통을 지닌 문어(literary languages, 文語)들이지만, Karen과 Shan과 같은 다른 나라 언어들은 과거 백년 동안에 겨우 글쓰는 체계를 획득했을 뿐이다. 나머지 언어들 대부분이 20 세기 중반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차세계대전 이후로 서구와 일본학자들이 여태껏 무시돼오던 비문어(nonliterary languages, 非文語)들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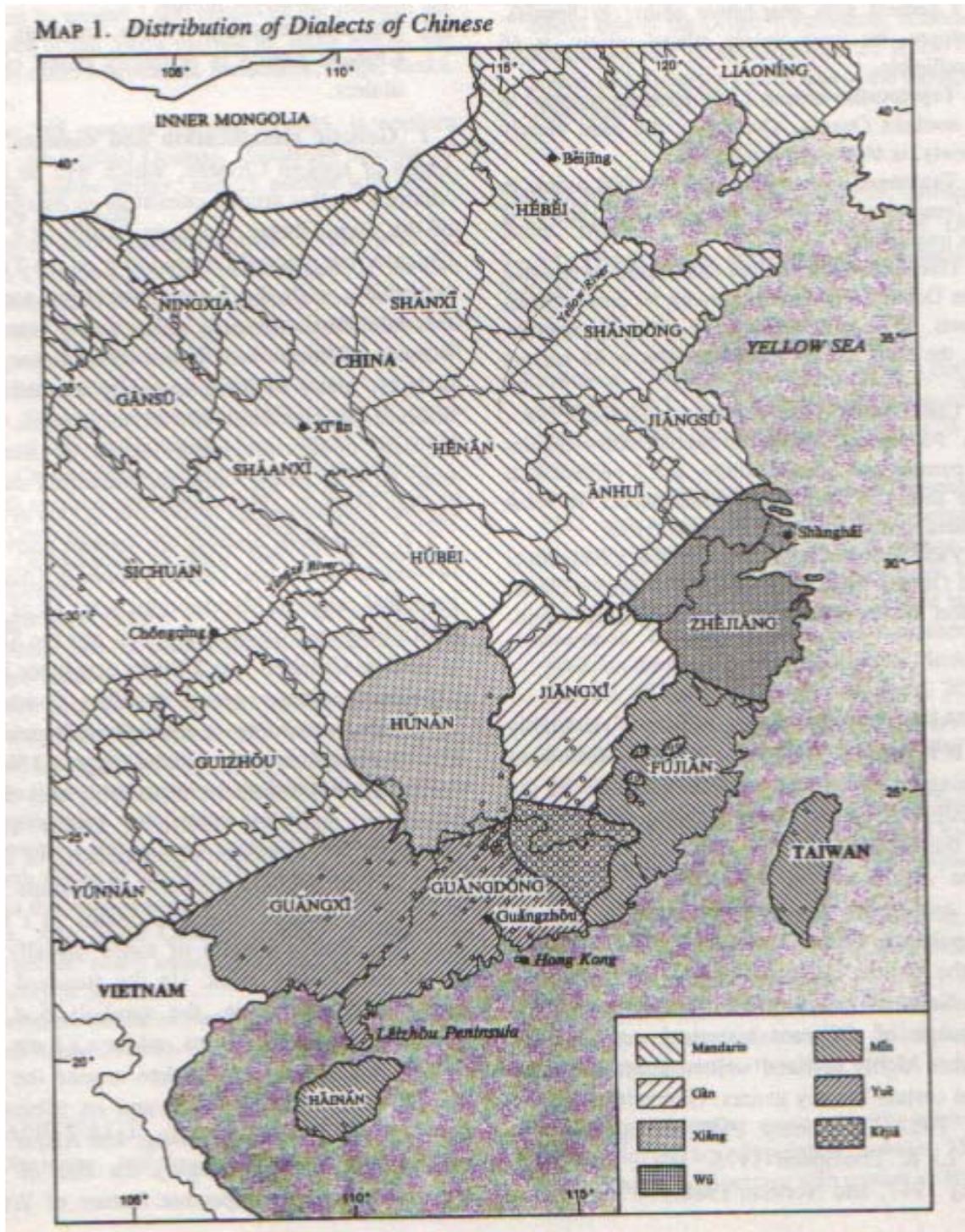
이 정도의 언어학적 차이는 남동아시아는 언급되지 않았던 수천년 동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들 나라와 태평양 커다란 섬들 사이의 교차로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동시에 차이나는 언어군들 사이의 오랜 접촉은드넓은 언어 지역에서 어떤 비슷한 특징을 유발시켰다. 발생적으로 교차하는 특징은 신분과 친척관계(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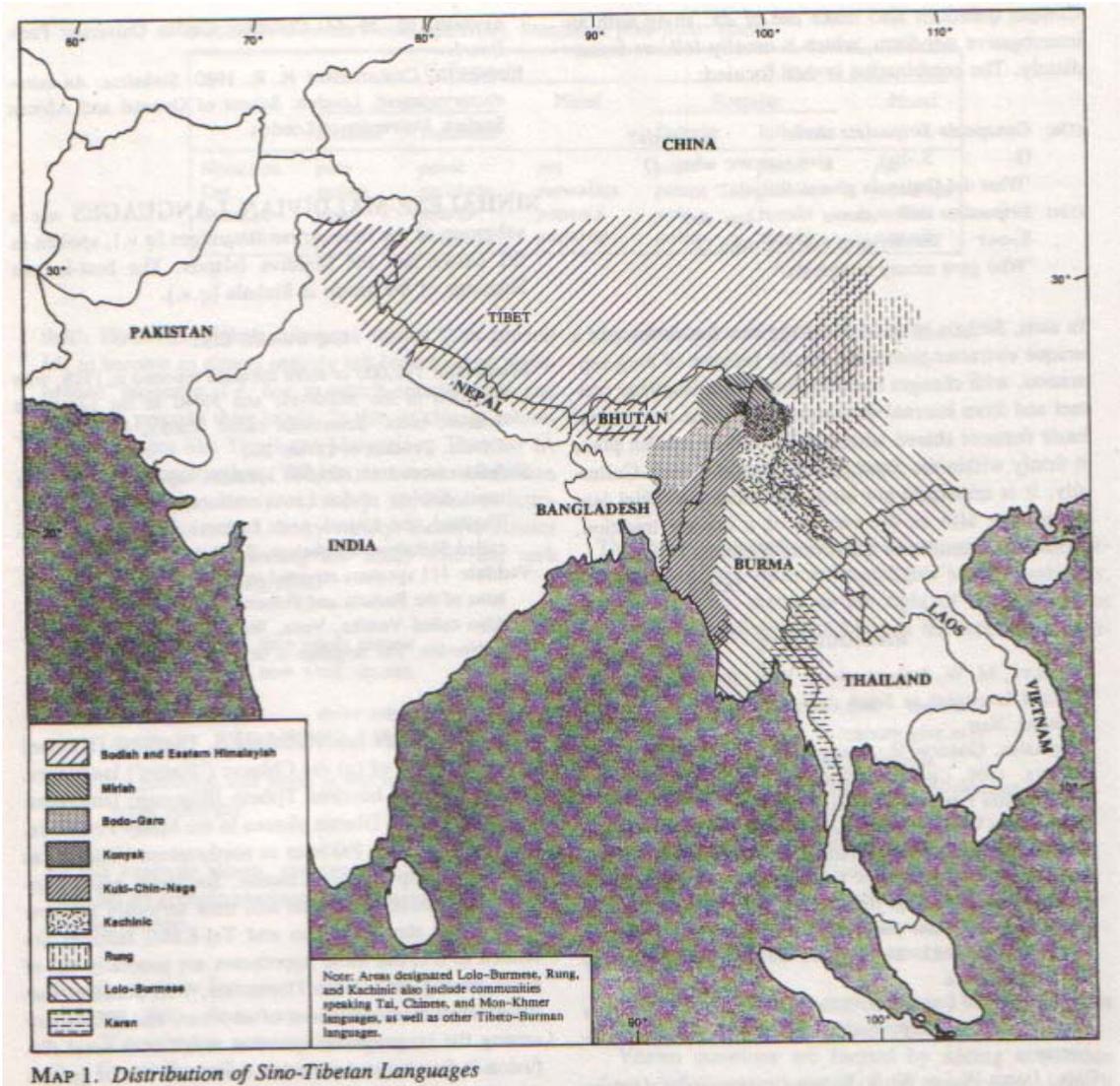
term)의 대명사들과 수 분류사들과 일련의 복잡한 동사(예를들어take-come-give(bring it to me)의 폭넓은 사용을 포함한다. 그 결과 심지어 Thai와 Cambodian과 같은 전혀 관련없는 언어들조차 어느 것이든 영어와의 상호번역 가능성 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들 상호간의 번역 가능성을 지닌다.

세 가지 주요한 언어학적 군(families, 群)들이 있다: ㄱ)Austronesian 또는 Malayo-Polynesian; ㄴ)Mon-Khmer; ㄷ)Sino-Tibetan. 잘-확인된 음성학적 상응들에 토대를 둔 현실적인 언어학적 재구성들은 단지 Austreonesian 군의 경우에서만 이루어졌다(번역중인 이 브리타니커는 1969년도 영어 판이다). *Malay*(Malaya)는 남동 아시아 본토 이 군의 주요한 대표언어이다. Mon-Khmer는 그 가장 협소한 의미에서 Mon(Burma)와 Cambodian 또는 Khmer(Cambodia)를 의미한다. Sino-Tibetan은 ㄱ)Tibeto-Burman ㄴ)Chinese ㄷ)Tai 라는 세 가지들을 지니는 것으로 무난하게(conservatively)묘사될 수 있다. Tibetan(Tibet)과 Burmese(Burma) 라는 두 개의 커다란 문어들에 따라 이름지어진 Tibeto-Burman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Lushai, Garo, Bodo(Assam), Jingphaw, Kachin(Burma) 그리고 가능하게 Chins와 Nagas(Burma)와 Lolo(남서부중국) 같은 많은 비문어적인 언어들도 포함한다. Karen 언어들(Burma와 Thailand)도 마찬가지로 관련될 수 있으리라. 가장 잘 알려진 Tai 언어들은 Thai 또는 Siamese(Thailand), Lao(Laos), 그리고 Shan(Burma)이다. 마찬가지로 덜 알려진 많은 언어들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소멸된 Ahom(Assam), 그리고 Dioi, Tho, Nung, Lung-Chow, 그리고 Wu-ming(northern Vietnam과 southern China)을 포함하여 여기에 속한다.

어군들을 위에처럼 귀속시켜 구분하는 것은 대답 불가능한 많은 물음을 남겨놓는다. 어떤 이론은 Tibeto-Burman와 함께 짝을 이루게 하여 Chinese와 Tai를 Sino-Tibetan의 단일한 하위 어군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다른 이론에 따르면 Tai는 전혀 Chinese와 (또는 Tibeto-Burman)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ustronesian에 귀속된다. 훨씬 더한 동일한 종류의 혼동이 다른 남서아시아 언어들과 더불어 발견된다. Vietnamese는 지금 Mon-Khmer어에, 지금 Tai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다른 언어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질 않았다. 많이 논구된 Austroasiatic 전제는 Mon-Khmer와 Vietnamese와 Muong과 마찬가지로 Munda어(India)와 Khasi(Assam)와 Nicbarese(Nicobar Islands)와 Semang과 Sakai(Malaya와 southern Thailand)을 포함하려고 시도한다. *Miao와 Yao*(China)

가 때로 더해진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Tai 또는 Tibeto-Burman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Austroasiatic 전제는 미묘하게, 예를들어 Austroasiatic 더하기 Austronesian(그 “Austirc” 이론)과 Austroasiatic 더하기 Japanese와 Austric 더하기 Sino-Tibetan처럼, 다른연결들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매력을 지닌다. 다른 축에 근거하면, 미국 인디언 언어들과의 초태평양적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제안됐다. 예를들어 Sino-Tibetan는 Nadene(Athapascan 언어 더하기 Tlingit와 Haida).

우리는 남동 아시아의 언어작업에 계속 집중함에 의해서만 오직 이들 언어들 관련성이 설득력있게 기술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기를 원한다. 원시-오스크로네시안과 원시-인도-유럽어에 도달하는 데에 사용됐던 것과 엄밀하게 동일한 방법들에 따라서 Tibeto-Burman과 Mon-Khmer와 같은 그러한 어군들의 언어학

적인 재구성이 속히 필요하다. 원시-Karen과 Proto-Bodod와 Proto Lolo-Burmese, 그리고 Tibeto-Burman의 하위 가지들에 관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자음들과 자음 군들 그리고 Proto Lolo-Burmese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정하게 알려졌다.

// S[ino]-T[ibetan] 군은 위 지도 1에서 보여진 것처럼, 티벳 고원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까지에서 그리고 북 파키스탄으로부터 북동 베트남까지에서 말해지는, ㄱ) Chinese(‘Sinitic’)언어와 ㄴ) 수백의 T[ibeto-]B[urman] 언어들로 이루어졌다.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Miao-Yao*와 *Tai-Kadai* 어군들은 시노(중국)-티벳어군과 관계될 가능성을 여전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학자들의 전제들은 문제의 그 언어들 사이의 구조와 어휘의 광범위한 유사성은 공유된 발생적인 상속 보다는 남동 아시아의 지역적인 유포(diffusion)로부터 결과한 것으로 여기는 다른 시노-티벳어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한다(참고문헌을 위해서는 Shafer 1957-63을 참조하라).

9-1)역사.

아직은 두루 합쳐지지 않은 분리된 두 영역들을 시노-티벳어군은 포함한다. 글쓰기 체계에 관한 해석과 발음의 다양한 원주민의 움직임(works)에 관한 해석과 그리고 고대 시의 리듬도식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는 2,500 년 동안의 중국어 음성학을 재구성하는 문제는 비교하는 작업들이 보다 더 표측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는 Tibeto-Burman 내의 그것들과 아주 다르다. 비교학적인 Tibeto-Burman은 (더 이상의 엄밀한 묘사가 우리의 현재 앎의 상태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수백 언어들로 다룬다. 이것들 중 많은 것이 실제로 묘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도 아마 몇 몇은 발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Tibeto-Burman 하위 가지들 사이의 발생 관계들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완성된 도식들을 결여하고 있다(Shafer 1966-74와 Benedict 1972의 분류들은 폭 넓게 인용된다. 쓸모있는 요약은 위해서는 Hale 1982를 보라).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그룹화들이 확정된 발생 단위들(units)이다(최근 논란거리인 ‘Rung’은 제외). [이하 생략 중국어 요약은 각 장에서 ...]//

차례

- 1)시노-티벳어 1
 - 1-1) 들어가기 2
 - 1-2) 역사 6

지도 도표 차례 1

- 1)중국행정지도 1
- 2)남아시아지도 2
- 3)중국어방언 분포지도 4
- 4)시노-티벳어분포지도 5